

보성·별교읍 문화·생활 인프라 잇단 개관 눈앞

11월 커뮤니티센터·내년 문화센터
볼링장·공연장·수영장·돌봄공간 등

전라남도 보성군이 보성읍·별교읍에 복합커뮤니티·문화센터 등을 잇따라 개관하며 문화·생활 인프라 시설 조성에 속도를 내고 있다.

7일 보성군에 따르면 보성리에 세워지는 '보성군복합커뮤니티센터'는 오는 11월 개관을 앞두고 있으며 별교읍의 '별교 문화복합센터'는 오는 2026년 개관을 목표로 조성되고 있다.

두 복합센터는 단순한 공공시설이 아닌, 보성군민의 문화·체육·가족돌봄까지 아우르는 미래형 커뮤니티 공간으로 주목받고 있다.

보성읍 보성리 일원에 총 410억원을 투입해 조성 중인 보성군복합커뮤니티센터는 연면적 1만6154㎡(지하 2층·지상 7층)에 달하는 대형 시설로, 오는 12월 개관을 앞두고 있다.

해당 건물에는 볼링장, 톨러스케이트장, 작은도서관, 보성소리 공연장, 가족센터(키즈카페, 공동육아나눔터), 의회

동, 생활문화센터, 공영주차장 등이 입주할 예정으로 군민의 일상과 문화를 한 곳에 녹여낸 '울인원 공간'으로 조성된다.

특히 VR 체험 기반 스마트체육관과 190석 규모의 보성소리공연장 등 보성만의 색깔을 담은 특화 콘텐츠는 향후 지역 관광과 청년 유입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별교읍 회정리 일원에 건립 중인 별교 문화복합센터는 연면적 1만524㎡(지상 3층, 3개 동) 규모로 총 420억원이 투입되는 대형 프로젝트다.

해당 시설에는 국민체육센터(수영장), 작은영화관, 아이돌봄센터, 작은도서관, 생활문화센터, 농촌중심지 활성화 복합 공간, 공영주차장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올해 말까지 외부 및 내부 마감공사를 마치고, 2026년 5월 최종 개관을 목표로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사업을 통해 도입되는 아이돌봄센터와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등은 별교읍권 생활 인프라 불균형 해소와 아이 키우기 좋은 지역 조성에 중추



보성군이 생활 문화 인프라 구축에 속도를 내고 있다. 사진은 별교복합문화센터 조감도. 보성군 제공

적 역할을 할 전망이다.

그동안 농업·관광 중심의 도시로 주목받아온 보성은 복합문화센터 건립을 통해 '여가·문화 도시'라는 새로운 인식 전환을 이끌어 낸다는 방침이다.

두 센터는 지역 간 문화 인프라 격차를 해소하는 핵심 거점으로서 기능도 하게 된다. 군청이 위치한 보성읍, 인구 밀집 지역인 별교읍을 중심으로 동·서부 균형 있는 여가 인프라 확충과 세대 통합형 공간 조성이 이뤄지는 셈이다.

김철우 보성군수는 "이제 보성에서도 퇴근 후 가족과 함께 볼링을 즐기고, 주말엔 아이들과 톨러장·VR 체험을, 별교에서는 수영장과 작은 영화관까지 누릴 수 있는 균형 잡힌 문화복지 도시로 거듭나고 있다"며 "군민 누구나 일상에서 문화를 즐기고, 가족과 함께 여가를 보내는 변화된 보성의 삶이 시작된다. 그동안 알차게 준비해 온 만큼 군민의 오랜 염원을 실현하는 사업이 되도록 꼼꼼히 챙기겠다"고 전했다.

보성·양종수 기자

상하수도요금 전용 홈페이지 운영
구례군, 온라인 민원 간편 처리

전라남도 구례군이 '상하수도요금 전용 홈페이지'를 개설해 운영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전용 홈페이지에서는 그동안 전화 문의나 종이고지서를 통해서만 가능했던 요금 조회 및 납부를 비롯해 자동이체 신청(계좌, 카드), 스마트고지(카카오톡, 문자) 신청, 수용가 명의 변경 등 다양한 민원 서비스를 24시간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다.

해당 서비스는 구례군청 홈페이지 내 '분야별정보-상하수도-상하수도요금조회·납부' 메뉴를 통해 접속하거나, 인터넷 및 모바일 환경에서(www.gurye.go.kr/waterpay) 이용할 수 있다.

김순호 구례군수는 "앞으로도 군민들에게 맑고 깨끗한 수도를 공급은 물론, 다양한 편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곽지혜 기자

'고흥군TV' 구독·댓글 이벤트
100명 추첨, 치킨 세트 제공

전라남도 고흥군이 오는 14일까지 고흥군 공식 SNS 채널을 통해 '고흥군TV 유튜브 참여 이벤트'를 진행한다.

이번 이벤트는 고흥군 공식 관광 SNS 활성화와 온라인 소통 강화를 위해 마련됐으며, 참여자 중 총 100명을 추첨해 치킨 세트를 증정한다.

이벤트 참여 방법은 △고흥관광 공식인스타그램(tourgoheung) 페이지 팔로우 △고흥군 유튜브 채널 구독 △업로드 영상 중 댓글 작성 △네이버 폼 링크 이벤트 페이지에서 신청서 작성 순으로 하면 된다.

당첨자 발표는 오는 16일 고흥관광 SNS에 게시할 예정이다.

고흥군 관계자는 "군민과 전 국민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온라인 이벤트를 통해 고흥군TV와 고흥관광 SNS 채널을 더욱 친숙하게 알릴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고흥관광 홍보를 위한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운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고흥·심정우 기자

광양시,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박차

전라남도 광양시가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7일 광양시에 따르면 슬레이트는 장기간 노출 시 파손 및 석면 노출 위험 가능성이 있어 계획적인 철거가 필요한 건축 자재다.

이에 시는 지난 3월 슬레이트 철거 전반을 담당할 위탁사업자를 선정하고 본격적인 사업에 착수했다.

올해는 총 8억48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주택 140동, 비주택(창고·축사 등) 35동, 지붕 개량 20동을 포함한 총 195동을 대상으로 철거 및 개량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우선지원 대상 가구는 슬레이트 철거 비용 전액과 함께 지붕 개량 비용을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일반 가구는 철거는 최대 700만원, 개량은 최대 500만원 범위에서 지원된다.

지원 사업 신청은 예산 소진 시까지 가능하며, 건축물 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최수근 광양시 자원순환과장은 "슬레이트는 시간이 지날수록 석면 노출 위험이 커지기 때문에 반드시 정비가 필요하다"며 "시민의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광양시 슬레이트 철거 위탁사업체 관계자들이 관내 한 취약계층 가구에서 슬레이트 철거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광양시 제공

위한 사업인 만큼 해당 건축물 소유주께서는 빠른 시일내 신청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으로 사업에 협조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광양·안영준 기자

한국수자원공사 여수권지사, 수어댐 녹조 대응 총력

한국수자원공사 여수권지사는 최근 짧은 장마와 지속되는 폭염으로 여수·광양 지역 주요 수원지인 수어댐의 녹조 대응 체계를 강화한다고 7일 밝혔다.

여수권지사는 사전 대응으로 광양시와 합동으로 댐 상류 야적퇴비, 쓰레기 등 오염원을 점검하고 조치했다.

수어댐 내 설치된 물순환설비, 조류 차단막 등 4종 17대의 물환경설비를 조기에 가동했다.

댐 취수탑의 수심별 조류 분석 지점 및

주기를 확대하여 상황 판단 체계를 강화하고 정제수역의 녹조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녹조 집적 예상 구역에서 선박 교란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녹조가 심화될 경우, 신속하고 집중적인 녹조 제거 작업을 위해 녹조제거선을 가동할 예정이며 이를 위해 조류제거물질 사용 승인을 미리 받아두는 등 대응 준비를 진행하고 있다.

여수권지사는 녹조가 수어댐 유역과 수돗물 공급까지 연계해 대응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므로 수어댐의 녹조 대응 현황을 관할 지자체와 지역 주민에게 적극적으로 공유하고 지역사회와의 협력 체계를 바탕으로 공동 대응 역량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정용재 지사장은 "수어댐의 녹조 발생 억제와 수질 안정성 확보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과 철저한 대응을 이어갈 계획이며 시민들이 안심하고 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조진용 기자

'생활여건개조사업' 공모 선정
장흥군 대덕 가학마을

전라남도 장흥군 대덕읍 가학마을이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주관 '2026년 농촌취약지구 생활여건개조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됐다.

7일 장흥군에 따르면 이번 사업 선정으로 가학마을에는 총사업비 22억원이 투입돼 주거환경 개선, 생활기반시설 확충, 문화복지 인프라 구축 등 주민 삶의 질 개선을 위한 다양한 기반 사업이 추진된다.

'농촌취약지구 생활여건개조사업'은 위생, 안전, 편의시설 등이 부족한 농촌 내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정부 공모사업이다. 지역 맞춤형 정주환경 조성을 통해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한다.

장흥군은 이번 사업을 통해 가학마을 내 노후주택 정비, 마을안길 및 배수로 정비, 안전시설 설치, 주민 공동이용시설 조성 등 실질적이고 체감도 높은 생활환경 개선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장흥·김전환 기자

'지속가능 도시발전' 정책 토론
여수시·여수산단공동발전협

여수시·여수산단공동발전협의회회는 오는 11일 오후 3시 전라남도 여수 히든베이호텔에서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을 위한 도시·주택 분야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정책토론회는 미래지향적이고 지속가능한 도시계획과 주택정책의 바람직한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추진된다. 여수 시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토론회 사회는 협의회 김신 사무국장이 맡으며 정기명 여수시장(여수시여수산단공동발전협의회 회장)의 인사말, 백인숙 여수시의회 의장·주철현 국회의원·조계원 국회의원의 축사 후 기념촬영, 기조발제, 주제발표, 각영역별 패널토론, 자유토론 순으로 진행된다.

기조발제는 국토연구원 부동산시장 정책연구센터 전성제 센터장이 맡아 국토교통부 제3차 장기주거종합계획을 중심으로 발표하고, 주제발표는 전남대학교 정금호 교수가 여수시의 도시 및 주택 현황을 주제로 한다.

정책토론회의 좌장은 여수지역발전협의회 박계성 이사장이 맡았으며 각계 영역별 전문가들이 토론자로 나선다.

각영역별 토론자로는 여수시의회 구민호 해양도시건설위원장, 여수시 이영호 도시건설국장, 여수상공회의소 최경남 감사, 여수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박종길 상임대표, 여수경영인협회 최재용 외무부부장이 참여한다.

토론회 마지막에는 시민 자유토론이 진행된다.

시민들이 직접 도시·주택 분야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고, 미래지향적인 도시발전을 위해 정책제언도 자유롭게 할 수 있다.

협의회는 이번 토론회에 참여하지 못하는 시민들의 목소리도 전달하기 위해 이메일(enyaks@hanmail.net)이나 팩스(061-644-2756)로 의견을 취합한다.

한편 협의회는 올해 하반기 고용·노동 분야에 대한 정책토론회도 추진할 예정이다.

여수·이경기 기자